

4 월 동 향	6	한국노총 경산지부 대표자 회의 참가
	13	제27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20~22	2010년 중간시험기간 '차 한 잔의 여유' 실시
	22	한국노총 경산지부 대표자 회의 참가
	26	제76회 직원인사위원회 참가 - 학원설립 64주년 및 대학개교 54주년 직원 정기포상대상자 심의
	27	제28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28	제17회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참가 - 특별채용(기능직 직종 전환) - 정년연장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2010년 1/4분기)
<http://pims.mest.go.kr:9129/mailling/click.php?lid=10535.97907d&e95b&rid=48795699.Cjv0i2MTnw>
 자료작성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목 차> 1. 미국 2. 일본 3. EU(유럽연합) 4. 중국
 5. OECD 및 기타 국제기구 6. 기타 국가

[Book] [내가 하는 직무분석] 건국대 법인 양인 계장 지음
 - 대학행정의 직무분석 보편화 기대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0980>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학행정 직원으로서의 10여 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대학행정 설계'란 개념을 활용해 직무를 분석하는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건국대 법인사무국 인사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Book] [캠퍼스 편지] 고려대 교무처 유신열 관장 지음
 - 대학행정 현장에서의 작은 성찰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0966>
 이 책은 저자가 대학 교무처에서 일하면서 느낀 대학행정의 문제점과 실무자들의 고충,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험에서 나온 내용을 다뤘다. 저자는 현재 고려대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인터넷판 보기
<http://ecatalog.c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unn1>

한 장짜리 보고서에 대한 단상

김지홍 | 법규부장 · 도서정보팀

인물 만들어야 한다.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어 언어(terminology)를 고르고, 애기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어떤 순서로 얘기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전체 내용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요구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보고서나 제안서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주장하는 바가 무언지 불분명한 보고서는 최악의 보고서다. 그래서(so what?)란 질문을 받았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원하는 건지, 인력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지, 장소를 빌려달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섯째, 오자, 탈자, 데이터의 오류를 살펴보고 예상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늘 허점을 찾는다. 보고 하는 사람은 테스트한다. 상대방이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오탈자를 지적했다면 당신의 제안은 끝난 것이다. 그 외에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격은 되는 것인지, 경험과 지식은 충분한지를 끊임없이 살핀다. 역사사자의 생각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기는 생각정리의 첫째 단계이다. 글쓰기는 두 번째 단계이다. One page proposal은 생각정리의 마지막 단계이다. 명확하게 정리된 생각은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필수과정이다.

첫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짧은 글을 쓰는 것이 긴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시(詩)가 가장 쓰기 어렵다고 한다. 제안서도 마찬가지다. 짧게 요약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소화과정이 중요하다. 완벽한 소화과정 없이 짧은 제안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걸러내고 축소하고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글에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등의 결말은 없어야 한다. 흥미롭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실도 제거해야 한다. 내용과 관계는 적더라도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려는 욕구도 자제해야 한다. 뻔한 사실도 빼는 것이 좋다. 보고 받는 사람들은 대개 그 방면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춘 경우가 많아서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긴장감을 없앨 위험이 있다. 그들이 모를만한 사실, 주위를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만을 정제하여 집어넣어야 한다. 수정차

인물탐색

신규 조원인 인물탐구, 그들을 알아본다!!!

신입(!)직원 인사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작년 가을에 입사하여 입학사정관팀에서 일하고 있는 권주희입니다.
 대학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직 근무 경력이 짧아 여러 직원 선생님들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존안(尊顔)도 존함(尊翰)도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별 때마다 열심히 인사를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 들어오시는 외부의 분들에도 열심히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제야 일주 직원선생님인지 외부인인지 교수님인지 정도는 알게 된 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 목표는 여러 선생님들의 존함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우리를 떠나려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새 학교에는 봄꽃이 활짝 피었다고 지고 2010학년도 신입생들을 선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교정에 넘쳐나는 열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는데 저에겐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직원선생님들로부터 "권선생 들어온 지 아직 그즈뵈에 안됐어?"라는 말을 이따금씩 듣곤 합니다.
 외모가 전혀 신입 같지 않은 만큼(!) 업무에 있어서도 신입의 티를 벗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입학처
입학사정관팀
권주희 선생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자녀만 말씀드렸듯이, 이기동, 이선우, 김문만 할아버지가 노동조합을 떠나서 백만 원을 기증하셨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기증금으로 책을 사서, '책이 주는 힘을' 생명을 얻는 조합원에게 한 권씩 선물할 예정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학자 왕안석은 "책은 사는 길로 손에 잡히지 않으나, 책을 훑을 만 하면 이익을 가져다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신 선물이 조합원 여러분에게 뜻깊은 책의 기쁨을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제2회 노동조합 위원장 양춘호

5월 월간이벤트 "가정의 달"

100,000 원 상당의 OUTBACK 선물을 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명언 "가정은 삶의 보물상자가 되어야 한다." -코르뷔제-

최인희(입학사정관팀)
임숙경(국제교육지원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Culture 4U 이벤트 당첨자 발표: 매일, 매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갑니다.

Happy Birthday

이름	소속	생일
김명호	학생지원팀	5. 5
이종준	산학연구진흥팀	5. 5
이석범	법과대학행정실	5. 6
최종환	구매팀	5. 7(☎3.24)
김규연	정보화개발팀	5.11(☎3.28)
서은숙	감사팀	5.15(☎4.02)
황수공	경상대학행정실	5.16
이수찬	평가분석팀	5.17
손영숙	총무팀	5.18
최성환	정보통신운영팀	5.21(☎4.08)
채쾌수	산학연구지원팀	5.23(☎4.10)
고낙준	학생지원팀	5.23(☎4.10)
김상찬	총무팀	5.23(☎4.10)
김봉신	취업지원팀	5.24
박영민	법과대학행정실	5.24(☎4.11)
정형대	그린캠퍼스팀	5.25
최운열	정보통신운영팀	5.25